

“국정운영 중심은 국민...근본 바뀌어야”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이제 국정운영의 중심을 국민에게 두고 나라의 근본부터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장·차관 워크숍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국가는 과연 국민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성장한 만큼 그 혜택이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고 있는지, 민주주의가 확대된 만큼 정의와 공정이 국민의 일상에서 자리 잡고 있는지, 기본 중의 기본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 우리 모두 깊게 성찰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야 한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을 정부의 최우선 역할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정부가 하는

문재인 대통령 장·차관 워크숍 모두 발언

“국민 생명·안전 지키는 일, 정부 일 시작”

“장·차관, 공동운명체...한 팀 마음 가져야”

모든 일의 시작임을 다시 한 번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월에 있을 국가안전대진단부터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지 말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시행해주시 바란다”며 “안전진단 결과를 공개해 국민들께 실태를 알리고 이중 이용시설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만들고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은 국민 경제적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며 “각 부처는 청년 일자리 창출,

임금 격차 해소, 의료 복지 서비스 확대 등 국민의 삶을 지키고 개선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주시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부처의 업무 수행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며 “특히 부처 간 입장이 다르고 국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정책의 경우 충분한 설득과 공감의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을 각별히 명심해주시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혁신도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우리끼리 하는 혁신이 아니라 국민이 바라는 혁신이어야 한다”며 “혁신의 방향이 국민이어야 한다. 정말 정부가 달라졌다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진심을 다해 국민과 소통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정부가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시대”라며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 기울이고 정부 입장을 제대로 전달해야만 정부와 국민간의 진정한 소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관 여러분이 다함께 바라봐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라며 “여러분은 문재인 정부라는 한 배를 탄 공동운명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어느 부처가 잘한다 못한다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잘한다 못한다고 평가한다”며 “모두가 한 팀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부처 간에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일을 추진하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뉴스시



김태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與 “北 공연 일방적 취소 옳지 않아”

“속내 알 수 없으나 합의 지키길”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북한이 내달 4일 진행하기로 합의했던 남북 금강산 합동문화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합의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신윤의 새아침’에 출연해 “북한은 기존에 남북간의 합의를 통해서 약속된 것들은 이행해야 한다”고 말한 뒤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자고 하는 것은 우리민의 열망이 아니다. 이것을 북한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매우 옳지 않다”고 말했다.

김태연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취소 중단의 사유가 남한 언론의 보도 탓으로 알려졌다”며 “다소 불만스러운 점도 있을 수 있겠으나 언론 자유가 보장된 남한 사회 체제의 특징을 북한도 이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북한의) 진짜 속내는 알 수 없으나 합의를 지켜주길 당부한다”며 “이 합의는 남한 언론과 한 게 아니지만 남한 양측의 정부가 한 합의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 당국에 촉구한다. 남북이 어려운 여건과 환경에 있지만 평화로 가는 소중한 합의, 발걸음을 멈춰서는 안 된다”며 “어렵지만 합의를 지키는 것이 신뢰를 쌓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요구했다.

홍준표 “광역단체장 출마 전 의원직 사퇴하려면 탈당하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30일 ‘광역단체장 출마를 위해 국회의원직을 사전에 사퇴하겠다는 분이 있는데 그 결연한 의지는 높이 사지만 당을 위해 지중하라고 밝혔다.

홍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그래도 어려운 당인데 후보들마저 당 방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구 민류해도 고집을 부리고 있어 공개적으로 한바탕 한다”며 “후보가 되면 자동 사퇴다. 후보가 되기 전에 사퇴하겠다는 것은 예비후보 등록을 하기 위해서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같이 출마한

다른 국회의원들도 사퇴를 할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보궐선거 러시가 온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홍 대표가 경북도지사 출마를 위해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이철우 의원을 염두에 두고 이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른 경쟁자들처럼 양다리 걸치는 식의 어정쩡한 정치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치 신조”라며 “그동안 당내 경선에 참여해서 패하면 국회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저는) 경선에 지더라도 의원직 사퇴를 철회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했다.

安 통합 후 백의중군 관련

유승민 “공동대표로 지선까지 책임져야”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30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통합 후 백의중군하는 것과 관련해 “저는 안 대표가 공동대표로 지선까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설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안 대표가 불러나는데 동의하지 않고 그런 상황도 생각을 안 해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만약 안 대표에게 그런 상황이 온다면 생각을 새로 해 봐야 한다”며 “과연 통합신당이 (출범) 초반에 성공적으로 시작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되고 있으니 (안 대표의 백의중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생각을 해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물론 안 대표가 백의중군하겠다는 말을 반복하는 게 쉽지 않겠지만 계속 설득을 하고 있다”며 “(사퇴하려는) 중재파의 요구도 있기 때문에 안 대표가 이 사이에서 결국 최종 결정을 할 문제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도라산역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평화 간담회. 민주평화당 창당준비위원회 조세숙 위원장과 의원들이 30일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역에서 대학생 및 개성공단 기업인과 함께 평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하고 있다.

박지원 “민평당, 안철수만 아니면 OK”

“중재파 정체성 살아...인질정치 잡힌 비례대표도 함께해야”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30일 “민주평화당 창당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는 ABC, 즉 ‘Anyone ok! But Chulsoo!’(철수만 아니면 모두 OK)”라며 안철수 대표를 제외한 당 구성원들의 민주평화당 합류를 독려했다.

박 전 대표는 3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을 1인 복제로 만들고 쫓겨 혁명, 적폐정산 국가대개혁을 거부하는 안철수만 반대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소위 중재파 의원들도 정체성이 같기 때문에 함께 해야 한다”며 “안철수 불모정치, 인질 정치로 잡힌 비례대표 의원들도 합

계 해야 한다”고 중재파의 민평당 합류를 촉구했다.

그는 아울러 “안 대표의 강압적인 지시로 울며 겨자 먹기 식 통합을 추진하는 죄 없는 당직자, 당부위원도 OK”라며 “심지어 국민의당의 정체성에 동의하고 개별적으로 들어오시는 바른정당 의원들이 있다면 OK”라고 했다.

박 전 대표는 그러면서 “그러나 대한민국 정당 민주주의를 짓밟고 당을 사당화한 안철수만은 안 된다”고 거듭 말했다.

야호센터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062-960-6980
광산구 시암로 340번안길 5

광산구 Together 광산구